

김민재 (약력)

- 피램, 이제 강의로 만난다.

슬로건 : '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합니다.

출판 4개월만에 10,000부 돌파 신화! P.I.R.A.M 국어 단독 저자

- 중학교 300등 →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 고려대학교 사범대학&문과대학

- 출판 첫해 베스트셀러! P.I.R.A.M 국어 비문학편/문학편 단독 저자

- 강남 오르비학원 국어영역 강사

- 신촌 오르비학원 국어영역 강사

- 오르비클래스 국어영역 강사

출판 첫해 폭발적 반응! 국어 영역 베스트셀러 P.I.R.A.M 국어 저자의 모든 것.

처음이자 마지막 인강. 모든 것을 공개한다.

국어가 어려워졌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려워졌냐고 하면 잘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냥 지문이 길었다고 합니다. 화작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문제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결책은요? 라고 말하면 또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 물음에 대해 제가 내린 결론, 이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2021학년도 수능 대비 P.I.R.A.M 국어 작업을 하며, 가장 아쉬웠던 것 중 하나는

“책에서 제대로 언급하지 못한 내용들, 글의 한계로 인해 부족하게 전달한 부분들. 내년 교재에는 반영한다고 해도, 올해의 수험생들에게는 전해줄 수 없는 이 내용들.” 이었습니다.

이 아쉬움을 풀고자, 올해 학생들을 위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으로 준비했습니다.

피램의 처음이자 마지막 인강. 저의 모든 것을 전해드립니다.

커리큘럼

for 2020 피렘 국어 인강	생각의 틀 만들기	6.9월 모의평가 완벽 분석
비문학(독서)	생각의 틀 만들기 - 비문학	모평을 통해 수능을 예측하기
문학	생각의 틀 만들기 - 문학	
화법과 작문	생각의 틀 만들기 - 화법과 작문	

생각의 틀 만들기 - 비문학

강좌 목표&특징

- '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합니다.

- ① 단순한 지문 구조를 배우는 것에서 벗어나, 지문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생각의 틀' 제시
- ② 답의 근거를 찾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근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생각의 과정' 제시
- ③ 생각의 틀을 갖고 답을 수 있는, 올바른 공부법 제시

: 수능 국어영역에서 비문학의 영향력은 실로 지대합니다. 이에 학생들은 모두 비문학 공부에 매달립니다. 열심히 내용을 이해하려고도 해보고, 지문 구조를 배워서 이리저리 이용해보려고도 합니다. 답의 근거를 확실하게 찾으려 노력도 해봅니다. 하지만 성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적이 변하기 위해선, '생각'의 틀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하는지, 문제를 풀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하는지 확실한 틀을 잡으셔야 합니다.

우리엔 더 이상 시행착오의 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 기회, 마지막 인강 촬영이라는 절실함으로 무장한 저와 함께, '생각의 틀'을 만들어 봅시다.

수강대상

- ① 비문학을 대하는 '생각의 틀'이 없는 학생
- ② 비문학 기출문제를 어떻게 공부해야하는지에 대한 감이 '아직도' 없는 학생
- ③ 생각없는 양치기가 아닌, 목적 있는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

배우는 내용

- ① 지문 읽기의 기본적 태도
- ② 지문 구조별 '실전적' 접근법
- ③ 필연적인 문제풀이 방식
- ④ 평가원이 우리를 괴롭히는 다양한 요소에 대한 확실한 태도

: 답을 고릅니다. 4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3번입니다. 해설지를 봅니다. 3문단 둘째줄에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아~라는 짧은 탄식을 내뱉고, 문제 위에 씁니다. '꼼꼼하게 읽기'

이 속엔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사고과정이 빠져있습니다. 3번 선지를 판단하기 위해 '왜' 3문단 둘째줄로 가야하는지, '어떻게' 그 근거가 3번 선지와 연결되는지, 그렇다면 '왜' 4번 선지는 골랐으면 안 되는지, '어떻게' 하면 4번 선지가 틀렸다는 걸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빠져있습니다.

이 '생각'을 메워야 합니다. 그것을 돕습니다. 그 누구와의 강의, 교재와도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당연한 이야기만을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래서 모두가 놓치고 있는 그 지점을 잡아드립니다.

생각의 틀 만들기 - 문학

강좌 목표&특징

- '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합니다.

- ① 오직 실전만을 위한, 누구나 할 수 있는 작품 감상의 틀 만들기
- ② 오직 실전만을 위한, 확실한 선지 판단의 틀 만들기
- ③ 생각의 틀을 갖고 답을 수 있는, 올바른 공부법 확립하기

: 문학은 어렵습니다. 알아야 할 개념어도 많고, 해석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시어의 의미는 파악하기 어렵고, 소설의 주제는 뽑아내기 어렵습니다.

수능 문학은 쉽습니다. 개념어는 어휘적 측면에서 생각하면 되고, 해석, 시어의 의미 파악, 소설의 주제 파악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선지에서 해준 해석을 '평가'하기만 하면 됩니다.

한글을 읽을 줄만 안다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해석을 평가하기.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문학을 정복해 봅시다.

수강대상

- ① 문학을 대하는 '생각의 틀'이 없는 학생
- ② 문학 기출문제를 어떻게 공부해야하는지에 대한 감이 '아직도' 없는 학생
- ③ 생각없는 양치기가 아닌, 목적 있는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

배우는 내용

- ① EBS 연계의 맹점 + '수능' 문학을 대하는 기본 태도 정립
- ② 시문학 읽기의 기본 태도 확립
- ③ 고전시가에 대한 공포증 벗어나기
- ④ 소설문학 읽기의 기본 태도 확립
- ⑤ 헛갈림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고를 수 있는 능력 배양

: EBS는 어떻게 봐야할까요? 전문을 외워야할까요? 스타강사가 '찍어준' 지문만 보면 될까요? 본다면 어느 정도까지 봐야할까요? 아니 애초에 연계가 되기는 하는 걸까요?

시는 어떻게 읽어야할까요? 외계어 같은 고전시가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인물이 많은 소설은 어떻게 다뤄야할까요? 꼭 선지 두 개가 헛갈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모든 물음을 해소해 드립니다. 5시간만 투자하세요. 5시간 후, 문학은 여러분의 효자 영역이 될 것입니다.

생각의 틀 만들기 - 화법과 작문

강좌 목표&특징

- '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합니다.

① 화작, 가장 효율적으로 지문 읽기

② 화작, 가장 정확하게 빠르게 정답 고르기

: 우리는 화작에 대한 압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어렵지는 않은데, 막상 시험을 보면 꼭 한 두개씩 틀립니다. 빨리 풀어야 한다는 생각에 덤벼대다가 미끄러집니다. 뽀족한 수도 없고, 항상 고민만 합니다.

이제는 '생각'을 합시다. 화작도 그냥 읽고 그냥 풀면 안 됩니다. '생각'의 targeting, 그리고 이를 통한 빠른 선지 판단. 단단한 화법과 작문 실력을 만들어 드립니다.

수강대상

① 화작을 대하는 '생각의 틀'이 없는 학생

② 빠르고 정확하게 화작을 다 맞히고 싶은 학생

배우는 내용

① '생각'하며 화작 지문을 읽는 방식 정립

② 발문 분석, <보기> 분석, 선지 분석을 통한 targeting 방식 정립

③ 궁극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화작을 뚫어내는 방식 정립

: 우리는 화작을 다 맞혀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빠르게 풀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문을 효율적으로 읽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선지를 빠르게 선택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저의 생각. 아낌없이 나누겠습니다. 3시간만 투자하세요. 최고의 투자효율을 자신합니다.

모평을 통해 수능 예측하기

강좌 목표&특징

모의평가는 단순한 시험이 아니다! 수능을 예측하기 위한 도구이다.

- 기존 모의평가와 수능의 연계성 분석
- 6월, 9월 모의평가를 통한 수능 예측

: 모두가 말합니다. 6월, 9월 모의평가가 중요하다! 하지만 그 누구도 속 시원히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도대체 뭐가 중요한 건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 건지. 이에 대한 확실한 정답을 만들어 드립니다. 6월, 9월 모의평가는 수능을 예측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저와 함께, 2020학년도 수능을 예측해 봅시다.

수강대상

- ① 모의평가가 중요하다는 말은 들어 봤는데, 왜 중요한지는 모르는 학생
- ② 수능 당일, 만점을 가를 결정적인 한 문제를 정복하고 싶은 학생

배우는 내용

- ① 기존 모의평가와 수능 간의 연계성 분석
 - ② 2020 6월, 9월 모의평가의 특이점 + 오답률 1위 예측하기
- : 2017~19학년도 6월, 9월 모의평가는 어떻게 수능에 반영되었을까요? 그리고 반영된 결과는 어땠을까요? 만약 그 반영이 유효했다면, 이번 6월, 9월 모의평가는 어떻게 수능에 녹아들까요? 짧지만 강렬하게, 6월, 9월 모의평가를 해체해봅시다.

*본 강좌는 적중용 강의가 아닙니다. 6월, 9월 모의평가의 사후 분석용 강좌입니다.